



눈 앞에 보이는 반점 또는 플로터 Seeing spots or floaters

눈에는 초자체라고 하는 젤리 비슷한 물질이 안구 중앙의 구멍을 채우고 있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초자체가 줄어들거나 걸죽해지거나 또는 물처럼 묽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시야에 반점이나 줄 또는 먼지같이 작은 점들이 보이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흔히 반점 또는 플로터라고 합니다.

플로터는 또한 특정 안과 질환들과도 관련될 수 있으며, 편두통과 고혈압 같은 질환과도 관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과 수술 후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플로터는 단순한 배경이나 파란 하늘을 볼 때 더 명확히 나타납니다. 플로터는 사실상 눈 속에 떠 있는 것들인데 마치 눈 앞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플로터는 허상이 아니며 안과전문의가 특별 기구를 사용하여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시드니안과병원은 플로터가 보이기 시작할 경우 조속히 가정의/ 안과전문의/ 검안사에게 진찰받도록 하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플로터 자체는 해롭지 않으나 눈에서 발생하고 있는 변화는 눈에 손상을 일으킬 소지가 있으며, 치료하지 않을 경우엔 시력이 소실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시야에 섬광이 나타나는 경우엔 즉시 가정의/ 안과전문의/ 검안사 또는 지역병원으로 가서 상담하도록 하십시오.